



네 생각은 어때? 하브루타 꼼꼼 강좌

하브루타의 '경청'

자발적으로 진지하게 듣기

경청의 사전적 의미는 '귀를 기울여 들음'이다. 여기서 '귀를 기울여'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진지하게 듣는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경청은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공감하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본이 된다. 그런데 경청은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거나 공감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동의하거나 공감하지 않고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갖는다 해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진정한 경청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궁금하거나 듣기 좋은 말은 잘 듣지만 자신의 의견과 다르거나 별 관심이 없는 말은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상대방에게 말할 때는 시간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그렇지 않다. 2~3분만 지나도 지루해하고 제대로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듣는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가 쉬울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말을 경청하게 만들기가 쉬울까?' 대부분 전자로 대답할 것이다.

5~10분 정도 상대방과 토론을 하게 하고서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경청했는지 물으면 대부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미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잘 듣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러면서 상대의 말을 지루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상대가 잊사람일 때는 더더욱 상대의 말을 끊지 못한 채 그냥 듣고만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듣기는 경청이 아니다.

그럼, 경청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화나 토론에서 상대방이 내 말을 경청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상대방의 말을 억지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상호간에 경청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대화 방법이다.



▲ 눈을 맞추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들어주기이다.

경청하게 만드는 대화 방법

내 말을 경청하게 하려면 먼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꺼번에 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을 정리하여 나누어서 말해야 한다. 또한, 질문을 곁들여 상호작용하며 말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이솝 우화의 '여우와 신 포도'를 예시로 들어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어. 그때 텁스럽게 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포도나무를 발견했지. 그래서 여우는……”

이때 상대방이 이미 그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경우, 이 정도까지 듣고 나면 더 이상 진지하게 듣지 않을 수 있다. 아무리 열심히 말해도 그때부터는 경청이 안 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어. 그때 텁스럽게 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포도나무를 발견했지. 그 때 여우가 어떻게 했을까?”

라고 질문을 먼저 하는 것이다.

“아, 그 얘기구나. 포도를 따먹으려고 뛰어 올랐지만 키가 달지 않아 먹을 수 없었어.”

라는 대답이 나오면 우화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더 이상 우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바로 이어서 그 우화를 예로 들어 하려고 했던 말을 하면 된다. 다른 경우를 보자.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어. 그 때 텁스럽게 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포도나무를 발견했지.
먹음직스런 포도를 발견한 여우가 어떻게 했을까?”

“아하, 그 얘기구나. 포도를 따 먹으려고 하는데 울타리에 있는 구멍이 작아서 들어갈 수 없었어.
그래서 며칠을 짚고 들어갔지.”

“아니야, 여우는 맞는데 그 여우가 아니야. 네가 말한 것은 탈무드에 나오는 '여우와 포도밭' 이야기의 여우고,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솝 우화의 여우와 신 포도' 이야기의 여우야.”

“아,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궁금해하며 진지하게 듣게 된다. 바로 이것이 경청이다. 이처럼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나누어서 말하고, 중간에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하면 경청이 훨씬 쉬워진다.



그렇다면 이런 대화 방법을 어느 시기부터 학습시켜야 할까? 바로 유아기부터이다. 상대방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유아기에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기는 그 시기까지 형성된 상호작용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장한 이후보다 쉽다는 것도 그 이유이다.

그렇다면 유아들에게 어떻게 학습시키는 것이 효과적일까?

첫째, 선생님이나 부모가 유아와 대화할 때 짧게 나누어 말하고, 질문하며 대화한다.

유아기에는 어른을 모방하며 배우는 경향이 크므로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은 먼저 본을 보여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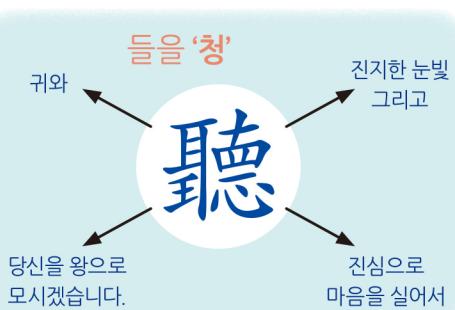
둘째,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되는지 정리해 준다. 지금부터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만 말하겠다고 미리 밝히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들어야 할지 예상하고 기다려 줄 수 있도록 하여 듣는 사람이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넌 어떻게 생각해?'라고 질문한 후 상대가 옳다고 인정하면 다음 이야기를 말하면 된다. 이때 상대가 질문이나 다른 생각을 말하면 그것에 대해 답한 후에 다음 말을 진행한다. 이러한 학습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 있다. 먼저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지루하게 느낀 경험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다. 누구와의 대화에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그런 다음 내가 어떻게 말할 때 상대방이 지루하게 느낄지 생각하여 밀하게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지루해하지 않고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 보고 말하게 한다. 이런 과정은 올바른 언어 상호작용 습관을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대화를 할 때 일방적으로 설명하면 듣는 사람이 지루함을 느끼기 쉽다.

인성의 중요한 덕목, 경청



▲ 귀와 눈, 그리고 마음을 다해 진지하게 왕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진정한 경청이 이루어질 것이다.

길러져야 한다. 유아기 하브루타 교육이 바로 이런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듣는 경청의 자세를 키워 줄 것이다.

한자 '들을 청'을 보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청은 삶을 살아가며 소통과 관계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성 요소이다. 그럼에도 우리 유아 교육 과정의 6개 인성 요소(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와 초·중등 교육 과정의 7개 인성 요소(정직, 책임, 존중, 배려, 공감, 소통, 협동)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경청은 공감, 소통, 배려, 협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덕목이다. 또한 경청은 하브루타의 질문, 대화, 토론, 논쟁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바른 인성 형성과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려면 경청하는 습관과 태도가 반드시

전성수 교수님과 함께 하브루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최초로 하브루타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브레멘+ 부설 하브루타 교육 연구소입니다. 유아 및 초중고 학생은 물론 학부모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브루타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하브루타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지금도 끊임 없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